

4개 철도·도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, 본격 착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5월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~양산~울산 광역철도, 광주~나주 광역철도, 서부권 광역급행철도, 영월~삼척 고속도로 등 4개의 사업이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.

○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【 ①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(부산~양산~울산, 광주~나주) 】

- 부산~양산~울산 광역철도는 부산광역시 노포역과 경상남도 양산을 거쳐 울산광역시 울산역을 잇는 48.78km 연장의 노선으로, 부·울·경 동남권 특화 도시 구축에 기여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, 울산 KTX역 접근성을 강화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광주~나주 광역철도는 광주광역시 상무역과 전라남도 나주역을 잇는 26.46km 연장의 노선으로, 광주전라권 내 거점 연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, 광주전남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, KTX역(광주송정, 나주역)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국토교통부는 '21년 8월 5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, 그중 2개 사업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, 나머지 3개 사업*도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.

* 대전~세종~충북, 용문~홍천, 대구~경북 광역철도

【 ②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】

-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'21~'30)에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반영*된, 경기도 김포시 장기역과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.
- * 장기역~부천종합운동장역 21.1km 신설,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공용하여 서울 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 추진
-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,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, 해당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여 김포골드라인 등 기존 철도 및 도로 노선의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.

【 ③ 영월~삼척 고속도로 】

- 영월~삼척 고속도로는 동서 간 교통망 구축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('21~'25)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구간이다.

* (영월~삼척 고속도로) 강원영월군 영월읍~강원삼척시 등봉동, 70.3km 4차로 신설

- 본 구간이 건설되면 국가 간선 도로망의 동서 6축이 완성되고 이에 따라 항만·화물 및 친환경 수소사업의 동-서 간 연결, 폐광지역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. 아울러, 낙후된 강원남부에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이동성이 향상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□ 금번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철도, 도로 사업들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, 설계,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뿐 아니라 정책성, 지역균형발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지방권 선도사업>	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	책임자	과 장	정수호	(044-201-3988)
		담당자	사무관	이현진	(044-201-4133)
			주무관	한현진	(044-201-3986)
<서부권 광역급행철도>	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책임자	과 장	안재혁	(044-201-3964)
		담당자	사무관	박정호	(044-201-3972)
			주무관	송인규	(044-201-4024)
<영월~삼척 고속도로>	도로국 도로정책과 (지하고속도로팀)	책임자	과 장	한명희	(044-201-3875)
		담당자	팀 장	이종현	(044-201-3904)
			사무관	장인호	(044-201-4769)

